

# 30주년 맞은 KCRP... '이웃종교' 개념 확산

### '2016 정기총회' 24일 개최 사업계획·신임대표 승인

1965년 평화사회 건설 취지로 출범  
'30년사' 발간 등 기념사업 추진  
7대 종단대표, 대중 토크콘서트도  
신임대표 회장에 김영주 목사 선출



KCRP는 2015년 2월 25일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들의 자성과 협력을 촉구하는 '함께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KCRP는 종교간 화합과 일반 국민정서 순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KCRP는 우리 사회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모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1965년 출범했다. 현재 한국 7대 종단(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이 소속돼 있으며, 산하단체 ICRP 및 지역KCRP(부산·광주·대구·충북청주·대전충남·경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월 2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6 정기총회'에서는 30주년 기념사업을 비롯한 2016사업계획안이 상정·결의됐다. 아울러 KCRP 신임대표회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이어 김영주 한국기독교회협의회총무가 당선

일지로 선출됐다.

KCRP는 올해 30주년을 맞아 △기념식 △세미나 △30년사 발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KCRP의 30년사 발간은 연중기획으로 이뤄지며, 발간 후에는 KCRP 공동회장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유관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웃종교스테이'를 지난해 이어 7~8월 중 총 7회 개최하는 한편, 7대 종단 대표 성직자 및 종교계 유명인사들과 함께하는 '이웃종교화합대회 토크콘서트'를 기획 중이다. '종교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대중 토크콘서트는 10월 중에 예정돼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이처럼 KCRP가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발굴·기획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화합뿐만 아니라 이웃종교들을 경험함으로써 일반 국민정서 화합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KCRP 중앙위원 법현 스님은 "종교간 평화와 화합을 위해선 현 지도자들의 노력 이외에도 미래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KCRP는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현재 예비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이웃종교이해강좌' 또한 같은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현 스님은 KCRP의 가장 큰

성과로 '이웃종교' 개념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킨 것을 꼽았다. 법현 스님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other religion(다른 종교)'란 개념이 있을 뿐 'neighbor religion(이웃종교)'란 개념이 없다. KCRP지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면서 "역사적으로 법현 스님, 김수환 추기경, 변선환 목사 등 이웃종교와 화합을 강조한 종교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날 KCRP 신임 대표회장 자리에 김영주 목사가 선출됐다. 김 목사는 "한국 종교가 더불어 상생하는 길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년 간 대표회장을 맡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이임식도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30년 간 KCRP는 이웃종교 간 대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임 대표회장과 함께 KCRP가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이 사회에 평화와 상생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대의원 총원 88명 중 참석 47명·위임 25명 총 7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박익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큰 일꾼 될 꿈나무들 울타리 되길'

### 제11회 대행정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학생 38명 수혜



안양 한마음선원은 2월 21일 대행정학회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행정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3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은 2월 21일 대행정학회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행정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은 대행정학회는 "세상의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리라"는 대행정학의 후학 양성에 대한 유지를 받들어 매년 전달하고 있다.

선발 대상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신행 활동에 적극적인 청년, 학생 불자들이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경인교대에 재학 중인 신심 돈독한 대학생 불자 5명을 포함해 총 38명의 학생들에게 8,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실천승가회 신임 대표 시공 스님 선출

### 2월 24일 '19차 정기총회'서... 2016사업계획 발표도

6년 간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이끌어 온 퇴휴 스님이 자리서 물러나고 신임 대표에 시공 스님이 선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실승회)는 2월 24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 3층서 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실승회 신임 상임대표 및 임원 선출, 2016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안건이 처리됐다.

실승회 상임대표는 제19차 총회준비위원회가 발의한 '대표단 및 집행위원 구성안'에 따라 시공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시공 스님은 "정토승가회 출범부터 실승회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제대로 한 일이 없어 상임대표를 맡는 것 자체가 누가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면서 "그러나 종단 및 사회, 정치계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조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 앞으로 젊은 스님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명예대표에는 前 상임대표 퇴휴 스님을 비롯해 성관 스님, 법안 스님이 선임됐다. 퇴휴 스님은 "6년 간 상임대표로서 우리 시대를 향해 무거운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항상 어려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종단과 사회에 실승회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실승회가 새롭게 재탄생하여 시대에 맞는 역할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공동대표에는 일문 스님과 재범 스님이 임명됐다.



아울러 이날 실승회는 2016년 사업계획안을 승인·발표했다. 실승회는 올해 INGO단체로서 견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의 사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베트남 평화인권 기행 △스크로디아 법인 사업 확대 △미얀마 지부 INGO 등록 등이

공동대표에 일문·재범 스님 임명  
'종교지형변화 분석' 사업 예정

다. 특히 실승회는 연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종교지형변화 분석'에 나선다. 이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바탕으로 종교 트렌드 및 불교 위상의 변화 양상을 분석, 한국불교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밖에도 출가자 수 감소의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함으로써 출가자 확보방안을 모색, 율해를 출가 진흥의 원인으로 삼은 종단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익을 기자

## 종단협, 유사협의회 참여 제재키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가 회원 종단의 유사협의체 참여를 제재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2월 23일 제52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유사 종단협의체에 대한 회원종단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협 내 범우회 활동에 대한 제재 등이 논의됐다. 범우회는 지난 회기에 사무총장 선출을 두고 군소종단과 대형종단 간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출범한 종단협 내 친목모임이다.

또 종단협은 올해 1월 29~30일 진행한 조세이탄광 수몰희생자 위령제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리고, 관음종이 지속 참여의사를 밝히는데 따라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크로드 지역에서 불교지도자 성지순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5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9억 3189만원, 특별회계 5억 4010만원으로 결산됐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 적극적 출가 정책 탄력 받는다

### 조계종, 출가 상담 전화 '1566-7936' 개통

상담사 스님 1:1 통화 면담  
5일 만에 100명 상담 요청  
은퇴자 출가제도 관심 높아  
홈피 리뉴얼 후 상담 확대

'출가 진흥의 원년'을 선언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추진하는 출가 진흥 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9일 출가상담을 위한 상담 전화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가 예비군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직접 사찰에 전화하거나 교육원으로 문의해야 했다.

상담 전화번호는 '1566-7936'이며, 운영시간은 오후 2~5시이다.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현재 활동 중인 출가 상담사 가섭 스님과 직접 상담 할 수 있

다. 출가상담사 스님은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상담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이뤄진다.

정식 개통이 이뤄진지 5일 가량(2월 25일 현재)이 지난 상황에서 반응은 폭발적이다. 1일평균 상담 건수는 15~20명 정도 5일 동안 100명 가까이 출가 상담을 했다. 특히 은퇴자·고령자 출가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가섭 스님은 "3시간의 운영 시간에는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도가 높다"면서 "종단에서 은퇴자 출가 계획을 밝혔던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상담을 받았던 사람 중에는 지역을 기반한 전문가도 상담 수"라고 밝혔다.

이어 "출가상담 전화에는 행자와 사미(니) 스님들도 전화를 해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출가 전담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전화의 성공적 개통과 함께 조계종의 출가 홈페이지도 새롭게 리뉴얼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간 출가 홈페이지는 관리 부족으로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리뉴얼 이후 출가 상담사 승찬 스님이 직접 홈페이지 상담을 담당하면서 출가 문의도 확대되고 있다.

김영주 교육원 교육차장은 "현재 출가 포스터 제작·배포와 더불어 적극적인 출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출가 상담전화 개통으로 직접 1:1로 상담이 이뤄져 양질의 출가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출가 콘서트와 동영상 공모전도 추진되면 종단 출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과 BBS불교방송은 협약을 맺고 '출가 공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수행자라면 한 번은 참고해 볼만한 화두집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선(禪)삼매를  
통한 선교쌍수(禪教雙修)의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견)이  
드디어 출판되다!

## 드디어 출판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1 견 석가를 품다</li> <li>제 2 견 평은 초대장</li> <li>제 3 견 법(法)을 버리다</li> <li>제 4 견 차 한 잔</li> <li>제 5 견 해인 삼매</li> <li>제 6 견 창조와 표절</li> <li>제 7 견 야부선사 웃다</li> <li>제 8 견 요지경</li> <li>제 9 견 말 많은 석가?</li> <li>제 10 견 히말라야 영화</li> <li>제 11 견 동시구족</li> <li>제 12 견 법맥?</li> <li>제 13 견 부처와 허투밤?</li> <li>제 14 견 윈드서핑</li> <li>제 15 견 발효식품</li> <li>제 16 견 한 맛</li> <li>제 17 견 뒤바뀐 안목</li> <li>제 18 견 평온한 남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19 견 참새집</li> <li>제 20 견 병(病)든 부처</li> <li>제 21 견 생화와 조화</li> <li>제 22 견 직거래?</li> <li>제 23 견 묘혜(妙慧)</li> <li>제 24 견 법은 무의(無依)다</li> <li>제 25 견 천도(遷度)란?</li> <li>제 26 견 고무마 부처?</li> <li>제 27 견 마음속 부처</li> <li>제 28 견 개나리는 노랗다</li> <li>제 29 견 범부와 선지식</li> <li>제 30 견 깨달음의 신호등</li> <li>제 31 견 다음생</li> <li>제 32 견 종(鐘)</li> <li>제 33 견 스승을 찾아서</li> <li>제 34 견 대자유인의 길</li> <li>제 35 견 집착을 놓다</li> <li>제 36 견 종교와 현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37 견 자식인연</li> <li>제 38 견 형제 인연</li> <li>제 39 견 도반인연</li> <li>제 40 견 부모인연</li> <li>제 41 견 대방광불 화엄경..</li> <li>제 42 견 왕(대통령)</li> <li>제 43 견 독각(獨覺)은?</li> <li>제 44 견 &lt;나&gt;</li> <li>제 45 견 대도(大道)란?</li> <li>제 46 견 부처님 오신날</li> <li>제 47 견 신통력(神通力)</li> <li>제 48 견 보시(기부)</li> <li>제 49 견 정견(正見)을 치다</li> <li>제 50 견 업(욕심의 흐름)</li> <li>제 51 견 평온을 만나다</li> <li>제 52 견 화엄경 7행詩</li> <li>제 53 견 평은 축제</li> </ul>
---	--	--

편저자  
독각~진귀 (獨覺~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수승행원 원일스님

☎ 도서출판 왕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